

러시아 곡물산업 동향*

배 상 두

1. 개요

1.1. 자연적인 여건

러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과거 소련이 지구에서 가장 큰 나라였지만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 이후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도 여전히 가장 큰 나라이다. 러시아가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나라인지를 설명하자면 지구 육지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을 합친 면적 정도가 러시아의 땅 면적이다. 다만 땅이 엄청나게 넓지만 경지면적(arable land)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계 4위로 미국, 중국, 인도 다음으로 알려져 있다. FAO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경작면적은 2009년 기준 1억 2,164만 9,000ha인데 이는 미국의 71% 수준이다.

넓은 경지 면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농업여건은 상당히 취약하다. FAO자료에 따르면 관개시설이 제대로 된 경지면적은 432만 6,000ha인데 이는 미국의 2,300만 ha의 1.8% 수준이다. 또한 기후대가 일부 온대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냉대기후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기상이변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본 내용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주재하고 있는 배상두 농무관이 작성하였다(baesd66l@naver.com).

1.2. 제도적인 여건

러시아는 과거 소련을 계승한 나라이다. 과거 소련은 시장경제가 아니었다. 러시아 역시 시장경제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현재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도기적인 전환기에 처한 경제(economy in transition)로 이해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기본전제로 해서 러시아 경제나 농업을 바라보아서는 러시아 경제나 농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세계경제로 편입되고 있지만 과도기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한계를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과거 소련의 계획경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새로운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했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과거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거대한 나라이므로 새로운 제도와 사고방식이 정착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1.3. 경제 개요

소련붕괴 이후 급격하게 축소되었던 러시아의 경제규모도 최근에는 많이 회복되고 있다. 통계를 보면 2005년의 1인당 GDP는 5,182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1만 315달러로 5년 만에 2배 증가하였다. 2009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위축 시키던 시기를 제외하고 최근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 경제구조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은 공동화되어 수입에 의존하고, 석유, 천연가스, 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자원은 수출하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 광석, 목재, 곡물, 수산물 등 1차 산업의 생산물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고 있다.

러시아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층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경쟁할 정도로 우수하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소비재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것은 과거 소련시절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지식층은 자원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로만 머무를 경우 아프리카나 남미의 자원부국이 겪었던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현상을 러시아도 겪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조업 및 관련 가공 산업의 육성에 따라 러시아의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가 결정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식층은 기대하고 있다.

표 1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명목GDP(만 루블)	26,610	26,917	33,247	41,428	39,101	44,939
명목GDP(억 \$)	753	1,022	1,354	1,410	1,293	1,474
실질GDP성장률(%)	6.4	8.2	8.5	5.2	-7.9	4.0
1인당GDP(\$)	5,182	6,710	8,813	11,304	8,682	10,315
인구(백만 명)	143.2	142.5	142.1	142	141.9	141.9
실업률(%)	7.1	6.7	5.7	7	8.2	7.2
물가상승률(%)	10.9	9	11.9	13.3	8.8	8.8

자료: 러시아 통계청.

2. 러시아 농업의 변화

2.1. 계획경제의 붕괴

러시아 농업은 지금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전개하겠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급격한 농업 변화를 경험했다. 소련의 붕괴는 계획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었고, 중앙정부의 통제나 지시에 따라 모든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농업에서는 국영농장이나 집단농장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으며 농촌사회의 급격한 해체를 가져왔다.

현재에도 그러한 여파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농촌사회의 해체는 농촌에서 많은 인구유출을 초래했다. 현재에도 러시아 농촌에서 생산성이 높은 효율적인 전문노동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국영농장과 집단농장 시스템의 붕괴 결과는 농업생산의 급격한 감소와 농산물 자급률 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심각한 분야가 축산이었다. 과거 축산은 중요한 분야로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했으나 소련의 붕괴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소의 사육두수 감소이다. 과거 소련 시절에는 육우와 젖소를 합쳐 6,000만 두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2,000만 두 수준이다.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지원도 많이 사라졌다. 1990년에는 소련 GDP의 약 10%가 농업에 보조금으로 투입되었으나 그러한 농업보조금 투입이 거의

사라진 것이다. 특히 축산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급감되었으며 이는 축산업의 위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축산업의 급격한 위축에 대해서 축산물도 식량으로서 자급을 주장하는 러시아 학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축산분야에 러시아가 비교우위가 없다고 주장하는 서구 학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비교우위적인 관점에서는 한정된 자원이 경쟁력이 없는 축산업에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2.2. 농업생산구조 전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쉽지 않았다. 농업생산에서도 집단화된 농장에는 지시와 명령이 사라짐에 따라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많은 문제가 파생되었다. 모든 의사결정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관여하던 것이 없어지고 농촌의 주민들도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은 지시와 명령에 따라 행동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낮은 일이었다. 집단화된 농장을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인수하여 생산이 재개되려면 해외자본투자와 선진기술 도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농지 소유권이 불명확했으며, 법적·제도적인 정비가 불충분했다.

집단농장의 해체 과정에서 농장구성원들에게 농지소유권 지분을 인증하는 증서(vouchers)가 제공되었다. 소련이 붕괴되는 1990년대에는 그 증서는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증서 소유자는 그냥 가게에 가서 보드카 한 병과 바꾸어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그 소유권 지분증서를 모아서 농장 소유권을 확보하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었다. 일부 농장은 소유권 지분을 주장하는 농장구성원들에게 분할되어 토지가 제공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국영농장, 집단농장들이 대부분의 농장구성원들을 포함하여 현재의 농업회사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농장의 농지가 농장구성원들에게 분할되어 일정한 규모의 농지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3. 농업 생산의 회복

러시아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990년대의 암울한 경제상황에서 많이 벗어나기 시작했다. 농업분야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농업 지주회사(agricultural holding companies)들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러시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형태이지만 법적·제도적인 미비한 상황에 기업들이 적용한 결과물

이다. 여기에는 지주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모회사가 되어 자회사인 농업기업이나 농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 지주회사가 현재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농업기업들이다.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농지 소유권 분쟁 등에서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편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으며, 농업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데서 생기는 법적분쟁을 회피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현재 러시아 농업 생산구조는 2009년 생산액 기준으로는 기업농 45.9%, 개인농가가 46.4%, 기타 7.7%이다. 농지면적으로 보면 2009년 기준으로 기업농이 러시아 농지의 71%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농가에는 집단농장 해체 이후 생겨난 소규모 농가들과 과거 소련 시절부터 농촌에서 농가별로 일정 부분 인정되었던 개별 소유 농지를 포함한 것이다.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품목에 따라 러시아는 기업농화가 많이 진전되었다. 기업농이 2009년 기준으로 곡물생산량의 90.8%를 차지하고 있어 기계화가 불가피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곡물 생산에서는 많은 농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이 주식으로 여기는 감자의 경우 기계화가 어렵고 많은 소농가들이나 농촌주민들이 재배하여 기업농이 7.5%만 차지하고 있다. 채소의 경우에는 기업농이 22.9%, 육류는 기업농이 40.2%를 차지하고 있다.

2.4. 곡물 수출 강국으로 전환

러시아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축산분야에 대해 투자를 감소했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자원이 효율적으로 투자됨에 따라 비교우위가 있는 곡물생산이 많이 회복되었고 국내 축산사료로 곡물을 공급하는 대신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되었다. 특히 2008년 러시아 전체 곡물생산량이 1억 500만 톤에 달할 정도로 곡물생산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2011년 러시아의 곡물총생산량은 9,400만 톤이며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 초까지 약 2,0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하였다. 러시아는 곡물수출은 세계 3위, 밀수출은 세계 2위로 농업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3. 러시아 곡물산업의 잠재력

3.1. 2011년 러시아 곡물생산 현황

러시아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러시아 곡물 총생산량은 9,390만 톤이다. 이는 가뭄과 산불 등 이상기후로 곡물생산이 급감한 2010년 대비 54.1%가 증가한 것이다. 총 곡물 생산량 중 밀은 5,620만 톤, 보리는 1,690만 톤, 옥수수는 670만 톤, 기타 1,410만 톤이다.

2011년 곡물생산을 평가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0년 이상기후로 단위당 생산성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나 바로 1년 만에 회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 2011년 러시아 곡물생산 현황

연도	구분	재배면적(천 ha)		생산량(천 톤)		단위면적당 생산량(MT/ha)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총계	43,194	43,568	60,960	93,908		
	밀	26,613	25,552	41,508	56,231	1.91	2.26
	보리	7,214	7,880	8,350	16,935	1.68	2.20
	호밀	1,762	1,550	1,636	2,969	1.19	1.95
	귀리	2,895	3,046	3,220	5,334	1.44	1.82
	옥수수	1,416	1,715	3,084	6,680	3.00	4.31
	쌀	203	211	1,061	1,049	5.28	5.07
	기장	521	826	134	878	0.78	1.39
	메밀	1,080	906	339	800	0.59	0.95
	콩류	1,305	1,552	1,371	2,451	1.39	1.67
	기타	185	330	257	581	-	-

자료: 러시아 통계청.

3.2. 러시아 곡물산업의 발전가능성

러시아는 곡물생산이 경쟁력이 있지만 생산성 향상의 여지도 아직 많다. FAO자료를 보면 러시아의 ha당 곡물 생산량은 밀이 2.3톤, 옥수수가 3.5톤, 보리가 2.3톤이다. 미국의 ha당 곡물 생산량은 밀이 3톤, 옥수수가 약 10.3톤, 보리가 3.9톤이며, EU(서유럽국가 기준)의 ha당 곡물 생산량은 밀이 7.3톤, 옥수수가 9.4톤, 보리가 6.6톤이다. 따라서 기계화, 품종개량 등 선진 농업기술 도입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곡물 생산성이 더욱 증가시킬 여력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러시아 곡물산업의 문제점

4.1. 기후적인 제약

러시아는 이상기후에 취약한 곳에 위치해 있다. 기상여건이 순조로울 때에는 곡물 생산이 많이 될 수 있지만 기상이변이 발생할 경우 곡물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곡물생산 추이를 보면 풍년이 계속되더라도 곧바로 흉년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예측이 어려운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아래 표는 러시아의 곡물생산이 얼마나 예측이 어려운 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 자료는 World Watch의 레스터쓰로가 세계 곡물생산의 불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것이었다. 러시아의 곡물생산의 취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인용되는 자료이다.

표 3 러시아의 곡물생산 추이

단위 : 백만 톤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생산량	86	102	95	78	61	67	86	46	53	63	82	84	65	75	76	76	79	105	94	60

자료: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www.fas.usda)

4.2. 법적제도적인 취약성

러시아는 아직까지 시장경제라고 말하기는 힘든 측면이 많다. 특히 소련시절까지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따라 농지도 국가나 집단만이 독점적으로 소유하였다. 토지 사유화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우여곡절이 많았다. 소련붕괴 이후 엘친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의회는 보수적인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극심한 제도적인 혼란을 겪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토지사유화를 정책으로 추진하였으나 의회의 반대로 많은 좌절을 겪었다. 그 이후 푸틴이 집권한 이후 정치·행정·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을 많이 찾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법은 여러 차례의 격렬한 논란을 거쳐 2001년에 확정되었으나 많은 제도적인 취약성이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과 개인으로서의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된 것이다. 다만 러시아 현지 법인을 합작회사(joint stock company) 형태로 설립하면 농지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법 집행이나 행정상에서 외국자본이 세운 합작회사도 많은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합작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라도 관련법에 따라 외국자본은 49%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보호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4.3. 농업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농촌붕괴에 따른 이농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났으며, 농촌 지역에 노약계층은 많지만 농업용 중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전문 인력을 찾기 어렵다. 또한 과거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사라졌다. 특히 젊은 농업전문 연구 인력들이 부족하다. 그 결과는 새로운 혁신적인 종자 개발, 가축개량 등 새로운 농업 기술 개발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유전자를 조작한 종자의 도입을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것 또한 새로운 농업기술 혁신을 이루는데 큰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5. 맺음말

러시아는 매우 광활한 땅과 많은 농업 잠재성을 가진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잠재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기후 등 자연환경적인 제약요건, 과거 소련시절의 유산 등 제도적인 문제점도 많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연방정부는 시장경제에 편입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요인과 변수들을 가급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시장경제로 본격 진입하지 않은 러시아에는 많은 투자기회가 존재하며 이를 먼저 선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lexander Sagaydak and Anna Lukyanchikova. 2011. "Development of Agricultural Land Market in The Russian Federation." Bridging the GAP between Cultures(FIG Working Group).
- William M. Liefert and Olga Liefert. 2012. "Russian Agriculture during Transition: Performance, Global Impact, and Outlook."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2012) volume 34, number1.
- Stephen K. Wegren. 2009. "Russia's Incomplete Land Reform."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64.
- USDA(United States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FAS(Foreign agriculture Service)
- FAO. FAOSTAT www.fao.org
- 러시아통계청(Rosstat) www.gks.ru